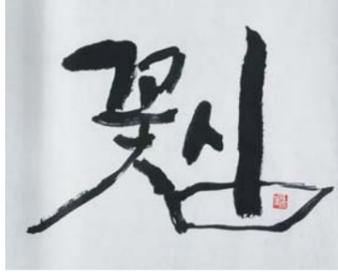




경기전 운용문 암막새



한지 유통 대장



김정남 작 '꽃심'

시민들과 함께 '전주정신' 공유하자

전주는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전주. 최명희 선생은 '흔들'에서 당시의 고향 전주를 이같이 표현했다. 그리고 그 '꽃심은 꽃의 심·꽃의 힘·꽃의 마음'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는 지난해 시민의 날에 '꽃심'을 전주정신으로 선포했다. 여기에는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열어가자는 열망과 열의가 담겨 있다.

전주정신을 되새기는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전주역사박물관(관장 이동희)이 개관 15주년을 맞아 마련한 '꽃심의 도시, 전주' 전시회로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전주의 역사문화, 전주시민의 생활양식과 삶의 철학 등 전주사람들

전주역사박물관, 개관 15주년 맞아 '꽃심의 도시' 전시회
내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주역사 대표하는 유물들 선봬

이 역사적으로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간 고유한 '전주정신'을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이동희 관장은 "전주사람들에게는 '대동·풍류·울곧음·창신'과 같은 기질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전주를 꽃심의 도시로 만든 원동력이자 힘"이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이 이 같은 정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동'은 넉넉한 심성으로 타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며 더불어 사는 상생의 정신

이고, '풍류'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즐기며 운치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이다. 또 '울곧음'은 의로움과 바름을 지키고 추구하는 것이며, '창신'은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꿈을 창출하는 법고창신의 정신이다.

전시는 전주정신 '꽃심'의 역사적 근거를 보여주는 60여점의 유물과 함께 전주정신에 대한 설명 옛 전주와 전주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듯 합한 용이 새겨진 '경기전 운용문 암막새'를 비롯해 완판본,

부채, 서화 등 전주역사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전주 소유는 아니지만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본 실록을 내장산에 수호하면서 쓴 일지 '임계기사' 원본도 소개된다.

일제강점기 전주한지를 전국에 유통하면서 기록해 놓은 '한지 유통 장부'도 공개된다. 이 한지 거래 대장은 전주한지의 역사를 담은 매우 귀한 자료로 지난해 박물관에서 어렵게 구입한 유물.

이 외에도 국립무형유산원 김정남 과장의 서예작 '꽃심'도 만나 볼 수 있다. 작품은 전주정신 꽃심을 형상화 한 것으로 사람들이 심지를 굳건히 하고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꽃심의 세계를 항해하는 의미를 담았다. /정해은 기자



'기타를 메고 바닷속으로'

소리축제, 어린이 그림 수상작 발표
대상에 중산초 서연주 학생 선정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는 '2017 어린이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공짜공짜 알록달록-소리 그리기'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는 역대 최대 작품인 약 1260점이 접수됐다.

소리축제는 심사를 거쳐 본선(9점), 특선(60점), 입선(140점)을 비롯해 단체상(2개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도교육감상(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서연주 학생(전주중산초 1학년)의 '바닷속 기타 소녀'다.

소리축제는 "대상작은 어른들의 손이 닿지 않은 어린이의 순수한 창작물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면서 작품의 순수한 상상력과 섬세한 표현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교육감상(대상) 이하 본상 수상자들에게는 총 2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미디어 체험전시 '공짜공짜 알록달록-그래, 나는 미술이다!' 체험티켓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어린이 그림공모 수상 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www.sorifestiva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특별체험 '카멜롯의 마법학교', 내달 군산예술의전당서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별체험전시로 미술의 원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카멜롯의 마법학교' 미술체험전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군산예술의전당 2·3 전시실에서 운영된다고 밝혔다.

'카멜롯의 마법학교'는 신비한 마법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로 5개의 미술의 방을 마련하여 입화식과 수료식까지 진행되며 공중부양마법과 신체변형마법 그리고 미술공예까지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특별전시는 단순히 전시공간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술을 제대로 배우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 미술과 같은 작은 미술을 직접 따라해

보고 카드, 마술봉, 거울상자 등을 이용한 미술의 원리를 통해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정진인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여름방학 동안 무료한 아이들의 일상에 즐거운 일탈이 될 수 있는 체험전시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험전은 어린이 1만원 / 단채(10인 이상) 7,000원 / 성인 5,000원으로 금강방송과 예술의전당 내 모차르트 커피숍을 통해 티켓을 판매하고 있으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s.gunsan.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군산=장현 기자

문화연구창, 내일부터 '전북도 잡학다식' 인문 강좌

(사)문화연구창(대표 최기우)은 '전북도 잡학다식' 인문학 강좌를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문화연구창이 2010년부터 인문정신과 문화예술이 만나 창조적인 삶을 가꾸자는 의미로 시작한 인문예창(人文藝創)의 일환으로, 올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한 도민문화예술 인문클래스 사업에 선정됐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될 강좌에는 공연·전시뿐 아니라 문화행정, 문화인력, 문화콘텐츠, 문화시설, 마을공동체,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전북의 문화예술과 생활 속 인문학을 들려 줄 예정이다.

초청강사는 강현정(전 효자문화의집관장), 고흥숙(화가), 김신태(문학박사), 신지영(전주부채문화관 운영팀장), 신보름(화가), 양귀영(전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팀장), 유대수(판화가), 이경진(원주공공체지원센터 팀장), 이근수(화가), 이근영(군산 '밤하지마' 대표), 이선희(전 호남형성년문화리더 팀장), 이준호(전 전주세계소리축제 운영팀장), 이항미(전주부채문화관 관장), 정문성(미디어아티스트), 정성혜(희명희문화관 사무국장), 정해인(교원전문가) 등이다.

20여 년 동안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다 2



년 전 고향 군산에 국립잡집 '밤하지마'를 낸 이근영·이준호 씨에게 듣는 '예술 장사와 국립 장사, 그 오묘한 점점'과 '전주, 13개 시·군과 같이 살자'를 비롯해 이근수·신보름 선배 화가가 들려주는 '문화예술인이 살아온 내력', '창년문화예술인이 줄곧 관심을 가져온 이선희 씨의 '전라북도 문화인력 양성정책, 뒤집고 까보자', '전주·임실·완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한 이경진 씨의 '시(市) 장사와 군(郡) 장사', '청년기 대부분을 문화시설 운영에 투자한 정성혜·신지영 씨의 '문화시설 운영자가 알아야 하는 꼭 한 가지' 등의 강좌는 주목할 만하다.

'전북도 잡학다식'은 오는 15~9월 21일 격주 목요일 오후 7시 최명희문화관 세미나실과 관화카페 대수공방에서 열린다.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90번째 정기연주회, 내일 공연

군산시립합창단(단장 한준수 부사장)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15일 아름다운 예술가곡과 레퀴엠으로 이룬 번째 정기연주회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고품격 음악회라는 부제로 준비된 이번 연주회는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지훈의 지휘 아래 국내 최고의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를 통해 예술가곡 슈베르트의 <송어>, <마왕>을, 아시아 최고의 프리마돈나로 평가받는 소프라노 박미자의 <마티

나타>, <그리운 마음>을 연속해서 감상하게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연주회의 하이라이트인 작곡가 '모리스 뒤뤼플레'의 <레퀴엠>을 군산시립합창단의 합창과 한일장신대학교 박원선 교수의 오르간 반주로 감상하며 제90회 정기연주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이번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공연티켓은 전석 무료로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군산=장현 기자

24일부터 6일간 '무주 태권도 월드뮤직 페스타'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과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이연택, 이하 조직위)는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중 '우리는 하나, 무주 태권도 월드뮤직 페스타'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월드뮤직 페스타에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김반장과 윈디시티, 하림과 아프리카 오버랜드, 수리수리마하수리,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어쿠스틱 앙상블 재비, 몽리퀸트, 오마르와 이스턴파워, 노선택과 소울소스, 킹스턴투디스카, 두 번째 달, 로스아미고스, 박주원, 타블즈' 등 최고의 뮤지션들과 DJ들이 함께한다.

우리는 하나, 무주 태권도 월드뮤직 페스타'는 태권도원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음악여행을 테마로, 다양한 뮤지션들의 공연이 1일에 2~3회 펼쳐질 예정이다. 레게부터 집시, 라틴, 블루스, 에스니 퓨전, 한국 전통음악 등을 통해 태권도와 월드뮤직으로 하나 되는 세계 음악 대잔치를 만나 볼 수 있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에 태권도원을 찾으시면 최고수준의 태권도 경기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먹을거리 등 문화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태권도원을 다녀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시제품 생산

기술, 정보제공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지원

지식재산권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첨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신황에 따라 상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